

<b>경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 제조업부문 감소세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월 서울지역의 산업생산지수는 88.9(2005=100)로 전년동월대비 9.6% 감소</li> </ul> </li> <li>○ 서울 대형종합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6.8%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월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백화점부문이 11.9% 증가하고 대형마트부문이 5.5%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8.9% 증가함</li> <li>- 판매액 증가의 원인으로서는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값 상승에 따른 단가상승이 원인</li> </ul> </li> <li>○ 서울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5.0%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월 서울의 소비자 물가는 전월대비 0.6%, 전년동월대비 5.0% 상승하였고 전도시 평균인 0.7%보다 높게 상승함</li> <li>- 전월에 비하여 통신, 교육 부문은 보합이나, 식료품·비주류음료, 교통, 기타 잡비, 가구집가사용품 등이 상승하여 전체적으로 전월대비 0.6% 상승</li> </ul> </li> </ul>
<b>고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월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동월대비 0.8%p 감소한 62.6%로 남자는 74.5%, 여자는 51.3%임</li> </ul> </li> <li>○ 서울의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월 서울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5천명(-0.3%) 감소한 4,972천명이며, 전월대비로는 0.2%감소함</li> <li>-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2천명(-0.1%), 여자는 13천명(-0.6%)으로 남자는 2,866명, 여자는 2,106으로 각각 감소함</li> </ul> </li> <li>○ 서울의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하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월 서울의 실업률은 3.8%로 전월대비 보합이었으며, 전국의 실업률인 3.1%에 비해 0.7% 높은 수준</li> </ul> </li> </ul>
<b>부동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월 기준 서울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월 서울의 건설수주액은 1조 9,14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3.6% 감소</li> <li>- 공공부문은 신규주택 공사 및 재개발공사, 발전 및 송전부문의 발주 증가로 건설수주액이 증가하였고, 민간부문은 도로교량 및 재건축재개발주택 공사부문의 발주의 감소 원인으로 건설수주액이 감소하였음</li> </ul> </li> <li>○ 7월 기준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소폭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은 전월대비 0.4% 상승하여 전월(0.7%)에 비해 상승세가 둔화됨</li> <li>- 전월에 비해 강북지역은 0.5%, 강남지역은 0.2% 상승하였음</li> </ul> </li> <li>○ 7월 기준 서울의 주택전세가격 전월에 비해 상승세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의 주택전세가격은 0.2% 상승으로 전월(0.3%)에 비해 상승세가 둔화됨. 강북지역의 상승폭이 축소된 반면 강남지역은 상승폭이 확대되었음</li> </ul> </li> </ul>
<b>금융</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월 기준 서울지역 대출금 전월대비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월말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460조 1,046억원 규모로 나타났음</li> </ul> </li> <li>○ 7월 기준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1,794개로 전월대비 168개 법인이 증가함</li> <li>○ 7월 기준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80개로 전월보다 17개 증가</li> <li>○ 서울시 수입과 수출은 모두 증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월 서울의 수출은 273.5%의 증가율을 보인 정밀화학원료, 107.7%의 증가율을 보인 컴퓨터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36.7% 증가</li> <li>- 7월 서울의 수입은 전년동월 대비 48.9%의 증가율로 수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LPG수입은 전년동월에 비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철강관(234.1%), 선재봉강 및 철근(192.6%), 석유제품(146.6%)등의 증가폭이 매우 컸음</li> </ul> </li> </ul>

## | 생 · 산 |

### 6월 경기는 제조업부문 전년동월대비 감소

#### ■ 전반적으로 수출 호조 및 서비스업 부진 등 증가세 둔화

- 6월 중 산업생산은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으로, 광공업 생산은 지난달보다 소폭 증가, 전년 동월대비로는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세 둔화, 재고는 지난달보다 확대됨
-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 화학제품, 의복 및 모피 등의 호조로 지난달에 비해 0.2% 증가
- 전년동월대비로는 반도체 및 부품, 영상음향통신 등의 호조로 6.7% 증가, 조업일수 조정지수로는 7.1% 증가함
- 서비스업 생산은 부동산 및 임대업, 금융 및 보험업,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등에서 부진하여 지난달에 비해 0.3% 감소함
- 전년동월대비로는 운수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등을 중시몽로 2.8% 증가하였으나, 증가세는 둔화됨

#### ■ 서울 제조업부문 전년동월대비 감소

- 2008년 6월 서울지역의 산업생산지수는 88.9(NSA, 2005=100)로 전년동월대비 9.6% 감소함
- 업종별로 보면 의복 및 모피 등에서 증가한 반면, 기계장비, 의약품, 금속가공, 기계장비 등에서 감소함

#### ■ 서울의 전년동월대비 중공업부문은 증가, 경공업부문 소폭 감소

- 중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23.7% 감소하였고, 지난 달 보다 감소세 증가함
- 경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1.2% 감소함
- 세부 업종별로 보면 의복 및 모피 등에서 증가한 반면, 기계장비, 기타제품, 금속가공, 의약품 등에서 감소

〈표〉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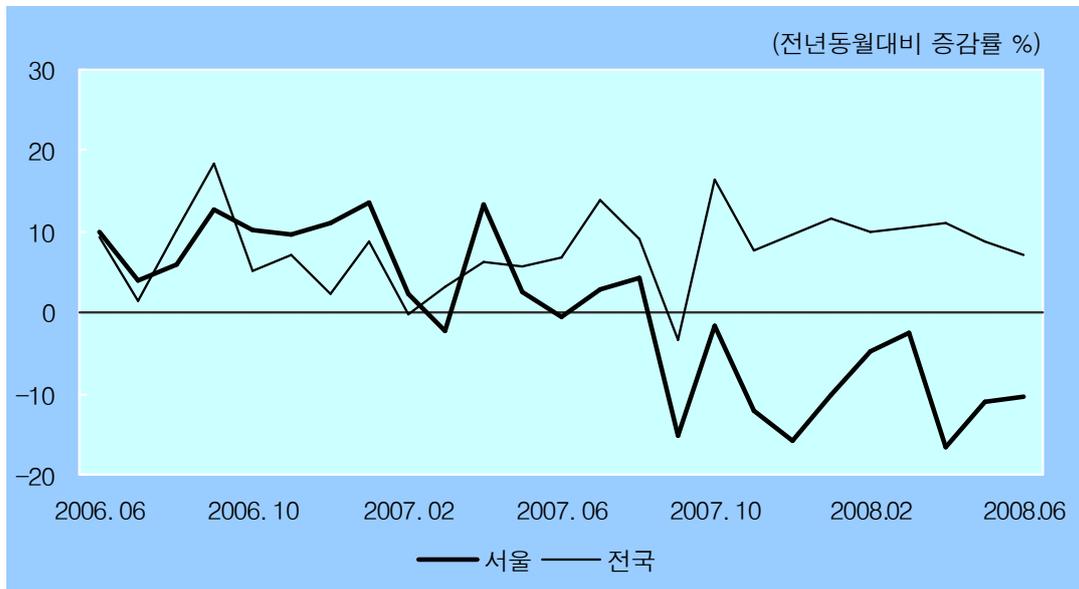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7년	2008년					
	6월	2월	3월	4월	5월p	6월p	
전년동월비	전국	7.0 (0.7)	10.0 (-0.2)	10.6 (1.1)	11.1 (1.0)	8.9 (-0.6)	7.0 (0.2)
	서울 (제조업)	-0.4 (-6.2)	-4.7 (-11.2)	-2.6 (12.4)	-16.7 (-6.6)	-11.1 (-3.7)	-10.4 (-5.6)
	중공업	-6.3 (0.3)	-17.8 (-6.1)	-15.5 (2.8)	-39.4 (-13.6)	-21.7 (0.6)	-23.7 (-2.4)
	경공업	4.1 (-10.4)	5.5 (-14.2)	6.2 (18.5)	1.1 (-2.9)	-4.5 (-5.7)	-1.2 (-7.3)

주: ( )안은 전월비임,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치를 나타냄

전월비는 계절조정지수의 증감률임(2005=100), 서울의 전월비는 원지수의 증감률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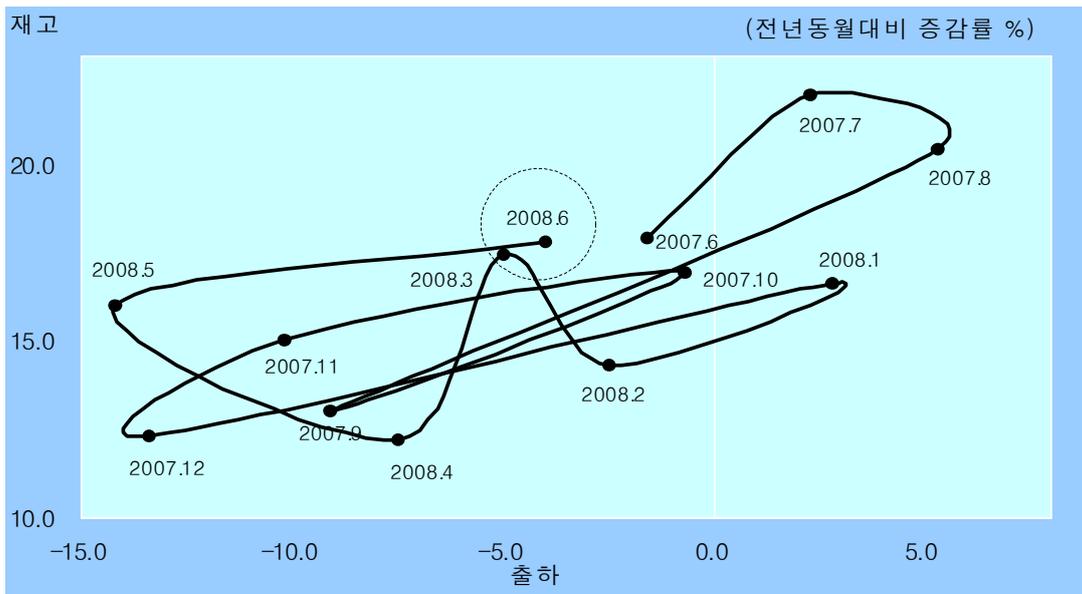


〈그림〉 서울과 전국의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 | 출하 · 재고 순환 |

6월 서울 제조업부문 의도된 재고 단계

- 서울지역의 생산자제품 출하지수는 93.3으로 전년동월대비 4.2% 감소
  - 업종별로 보면 의복 및 모피 등에서 증가한 반면, 기타제품,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금속가공, 섬유제품, 의약품 등에서 감소
  - 출하는 전년동월비 증가하고 재고도 전년동월비 증가하여 의도된 재고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Box> 참조)



<그림> 서울의 출하·재고 증감률 추이

<Box> 출하·재고 순환 상관표

출하↓	출하↑	출하↑	출하↓
재고↓	재고↓	재고↑	재고↑
재고조정	재고감소	의도된 재고증가	재고누증

■ 서울 제조업부문 재고율 증가

- 5월 전국 제조업부문 재고율은 107.3%로 전월대비 4.0%p 증가하였고, 서울 제조업부문의 재고율은 169.0%로 전월대비 6.9%p 증가함
- 업종별로 보면 기계장비 등에서 감소한 반면 의복 및 모피, 식료품,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그리고 섬유제품 등에서 증가
- 서울의 산업부문별 재고율은 중공업부문이 전월대비 11.3%p 상승한 170.8%를 나타냈고, 경공업부문은 5.1%p 증가한 166.1%로 나타남

〈표〉 서울과 전국의 제조업 재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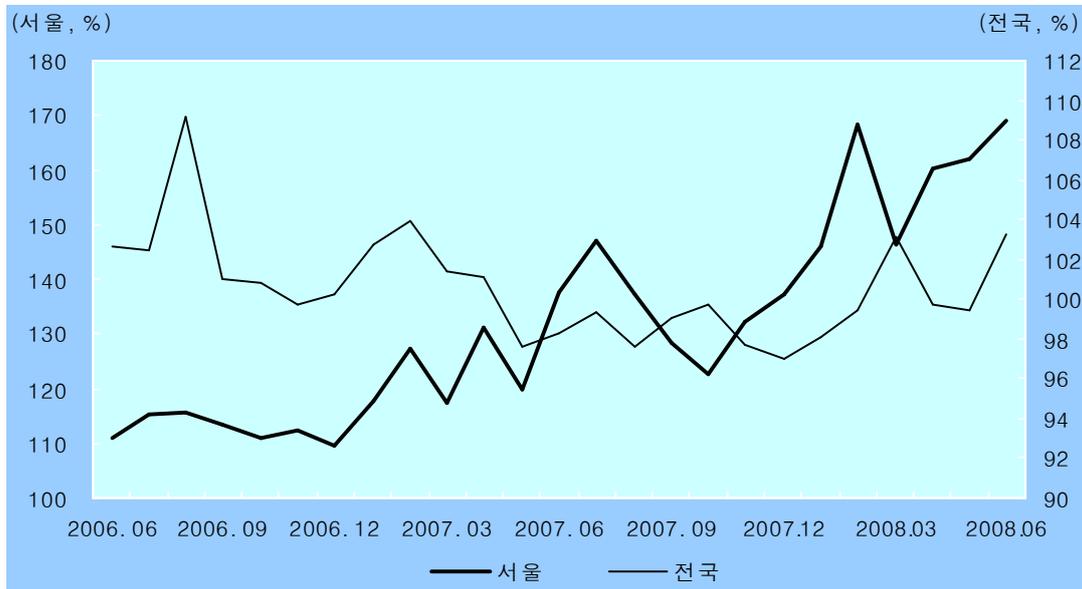
(단위: %)

구 분	구 분	2007년	2008년					전월대비 증감
		6월	2월	3월	4월	5월p	6월p	
재고율	전국	99.3	103.1	99.7	99.4	103.3	107.3	4.0
	서울	137.6	168.4	146.3	160.0	162.1	169.0	6.9
	중공업	133.9	170.2	150.2	179.9	159.5	170.8	11.3
	경공업	141.3	166.7	142.6	148.8	161.0	166.1	5.1

주: 제조업에 대한 재고율 (계절조정재고지수 ÷ 계절조정출하지수) × 100

서울의 재고율 (재고 원지수 ÷ 출하 원지수) × 100,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치를 나타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재고율 추이

## | 소 · 비 |

## 6월 서울 대형소매점 국제유가에 따른 판매액 증가

## ■ 전국 대형소매점 전년동월대비 판매액 증가

- 6월 소매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로는 6.8% 증가함
- 전년동월대비 차량용 연료를 비롯한 비내구재 비중이 커진 반면, 승용차, 가전제품컴퓨터통신기기 등 내구재와 의류 및 신발, 오락취미 및 경기용품 등 준내구재는 축소되었음

## ■ 서울 대형소매점 국제유가 및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판매액 증가

- 6월 대형종합소매점 판매액은 1조3357억으로 전년 동월대비 국제 유가 및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단가상승으로 8.9% 증가
- 백화점의 경우 전년동월대비로 혼수관련 용품(가구, 귀금속류) 및 의류 판매 호조로 11.9% 증가
- 대형마트의 경우 전년 동월대비로는 국제 유가 및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식료품 및 의류 단가 상승으로 5.5%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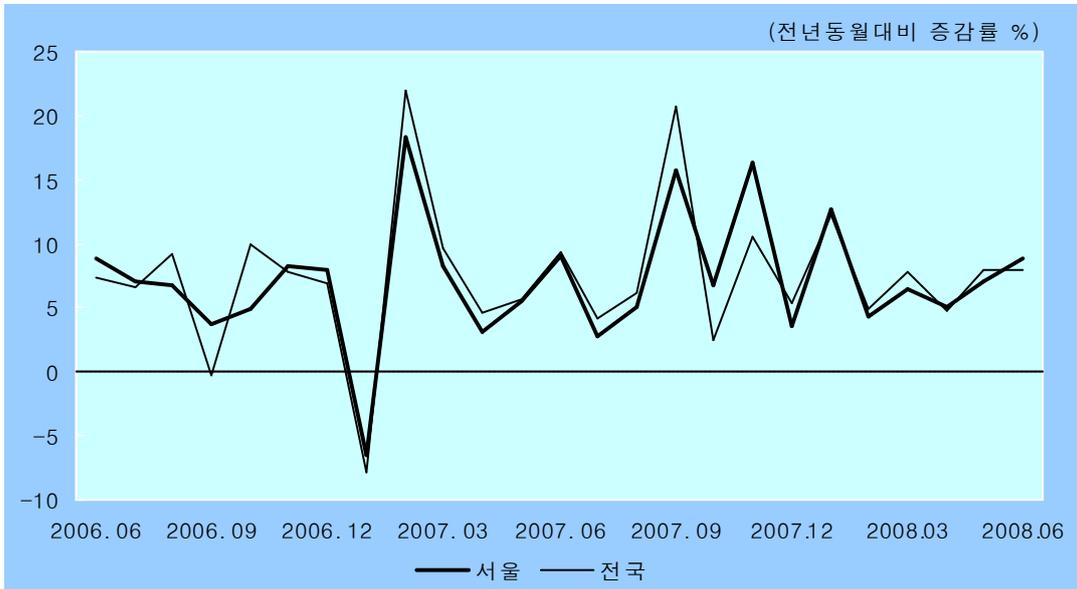
〈표〉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경상금액, 단위: 십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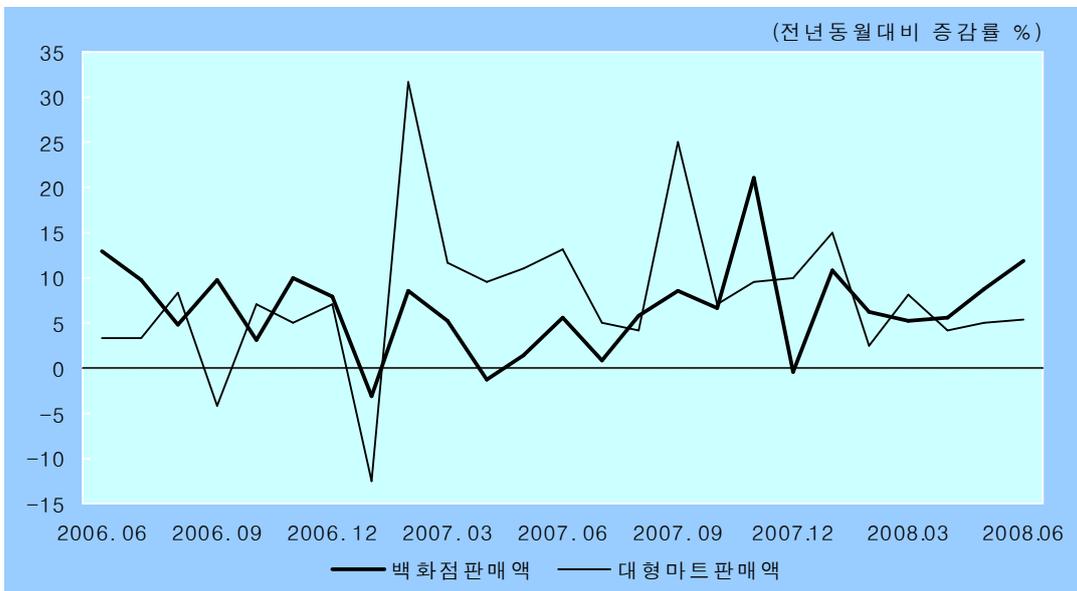
구 분		2007년	2008년				
		6월	2월	3월	4월	5월p	6월p
판매액	전국	3,665.8 (9.3)	4,134.3 (4.9)	4,190.4 (7.8)	4017.2 (4.7)	4230.5 (8.0)	3955.0 (7.9)
	서울	1,226.1 (9.0)	1,326.3 (4.3)	1,398.2 (6.5)	1376.7 (5.0)	1416.0 (7.1)	1335.7 (8.9)
	백화점	655.4 (5.7)	701.7 (6.2)	777.7 (5.2)	793.1 (5.6)	798.6 (8.8)	733.7 (11.9)
	대형마트 (할인점)	570.6 (13.1)	624.6 (2.4)	620.4 (8.2)	583.5 (4.1)	617.4 (4.9)	601.9 (5.5)

주: ( )안은 전년동월비임, 대형소매점은 매장면적이 3,000m<sup>2</sup> 이상인 소매점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할인점이 대형마트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 | 물 · 가 |

## 7월 서울의 소비자 물가 전월대비 상승

## ■ 전국의 소비자 물가 전월대비 소폭 상승

- 7월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0.7%, 전년동월대비 5.9%, 전년동기대비 4.5% 각각 상승
- 전월에 비하여 주류·담배, 통신, 교육부문은 전월대비 보합이었고, 식료품·비주류음료, 교통, 기타잡비 등 그 외 부문은 모두 상승
-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6%, 전년동월대비 7.1% 각각 상승

## ■ 서울의 소비자 물가 전월대비 소폭 상승

- 7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10.1(2005=100)로 전월대비 0.6%, 전년동월대비 5.0% 각각 상승함
- 주요도시의 전월대비 소비자물가는 서울이 전도시 평균(0.7%) 보다 낮게 상승함
- 부산, 인천, 광주는 전도시 평균과 같으며 그 외 대구, 충남 등은 전도시는 평균보다 높게 상승하였음
- 전월에 비하여 통신, 교육 부문은 보합이나, 식료품·비주류음료, 교통, 기타 잡비, 가구·집가·가사용품 등이 상승하여 전체적으로 전월대비 0.6% 상승

## ■ 생활물가는 전월대비 상승,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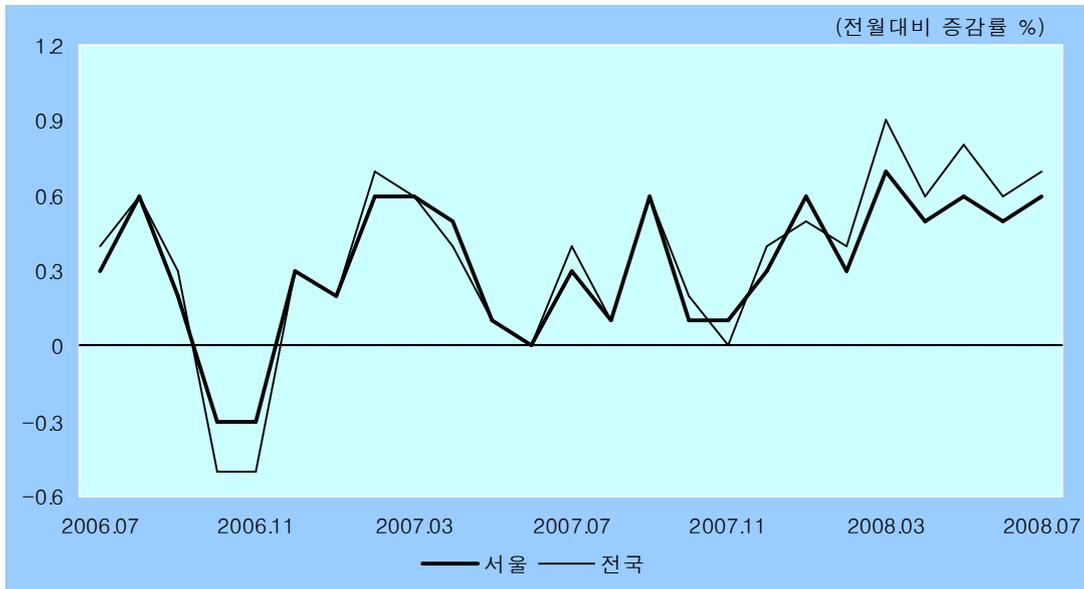
-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품목과 기본생활품을 중심으로 한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6%(전국:0.6%), 전년동월대비 5.7%(전국:7.1%) 각각 상승함
- 생선류, 채소류, 과일류를 대상으로 한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3.5%(전국:3.6%) 상승, 전년 동월대비 7.5%(전국: -6.1%) 하락함

〈표〉 소비자 물가 동향

(2005=100.0, 단위: %)

구 분		2007년	2008년						
		7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전월비	전국	0.4 (2.5)	0.4 (3.6)	0.9 (3.9)	0.6 (4.1)	0.8 (4.9)	0.6 (5.5)	0.7 (5.9)	
	서울	0.3 (2.7)	0.3 (3.5)	0.7 (3.6)	0.5 (3.5)	0.6 (4.1)	0.5 (4.6)	0.6 (5.0)	
	상품 성질별	상품	0.5 (2.1)	0.1 (3.8)	0.2 (3.9)	0.8 (4.3)	1.5 (5.9)	0.9 (7.1)	1.4 (8.0)
		서비스	0.2 (2.9)	0.4 (3.2)	0.9 (3.2)	0.3 (3.1)	0.2 (3.1)	0.3 (3.4)	0.3 (3.5)
	생활물가	0.4 (3.6)	0.3 (4.4)	0.9 (4.3)	0.5 (4.1)	0.7 (4.7)	0.6 (5.5)	0.6 (5.7)	
	신선식품	3.7 (10.4)	-0.2 (-2.5)	-4.4 (-5.1)	-1.0 (-6.7)	-1.0 (-5.1)	-5.4 (-7.2)	3.5 (-7.5)	

주: ( )안은 전년동월비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소비자물가 추이(2005=100)

## | 경 · 제 · 활 · 동 · 인 · 구 |

7월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감소

### ■ 전국의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소폭 감소

- 7월 15세 이상 인구는 39,62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17명(1.1%) 증가하였고, 경제활동참가율은 62.3%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4,382천명으로 97천명(0.7%) 증가하였으며, 여자는 10,290천명으로 31천명(0.3%) 증가하였음

### ■ 서울의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감소

- 7월중 서울의 15세 이상 인구는 8,25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6천명(0.9%), 전월대비 4천명(0.0%)이 각각 증가하였음
- 경제활동인구는 5,16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8천명(-0.3%)이 감소하였고, 전월대비 3천명(0.2%)이 감소하였음
- 경제활동참가율은 62.6%로 전년동월대비 0.8%p 감소하였고, 전월대비는 0.1% 증가하였음

〈표〉 경제활동인구

(단위: %)

구 분		2007년	2008년					
		7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경제활동 인구	전국	1.1 (-0.2)	0.7 (-0.1)	0.6 (1.7)	0.7 (1.6)	0.6 (0.8)	0.5 (0.1)	0.5 (-0.2)
	서울	1.0 (0.5)	0.2 (-0.7)	1.0 (1.1)	-0.1 (0.0)	-0.3 (0.3)	0.0 (-0.1)	-0.3 (0.2)
	남자	1.1 (0.7)	-0.3 (-0.5)	0.2 (0.9)	-0.4 (0.2)	0.1 (0.7)	-0.3 (-0.4)	-0.4 (0.6)
	여자	0.9 (0.2)	0.9 (-0.9)	2.1 (1.4)	0.4 (-0.2)	-0.8 (-0.4)	0.3 (0.4)	-0.2 (-0.3)
경제활동 참가율	전국	62.6	60.1	61.1	62	62.4	62.5	62.3
	서울	63.4	61.8	62.4	62.4	62.6	62.5	62.6
	남자	75.6	73.2	73.8	74	74.5	74.1	74.5
	여자	51.8	50.9	51.6	51.5	51.3	51.5	51.3

주: (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 | 취·업·자 |

## 7월 서울의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소폭 감소

## ■ 전국의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2008년 7월 취업자는 23,90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3천명(0.6%) 증가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3,87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1천명(0.8%) 증가하였고, 여자는 10,025천명으로 43천명(0.4%) 증가하였음
- 연령계층별로 보면 30대 이하에서 감소한 반면, 그 외 연령 계층에서는 증가하였음

## ■ 서울의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소폭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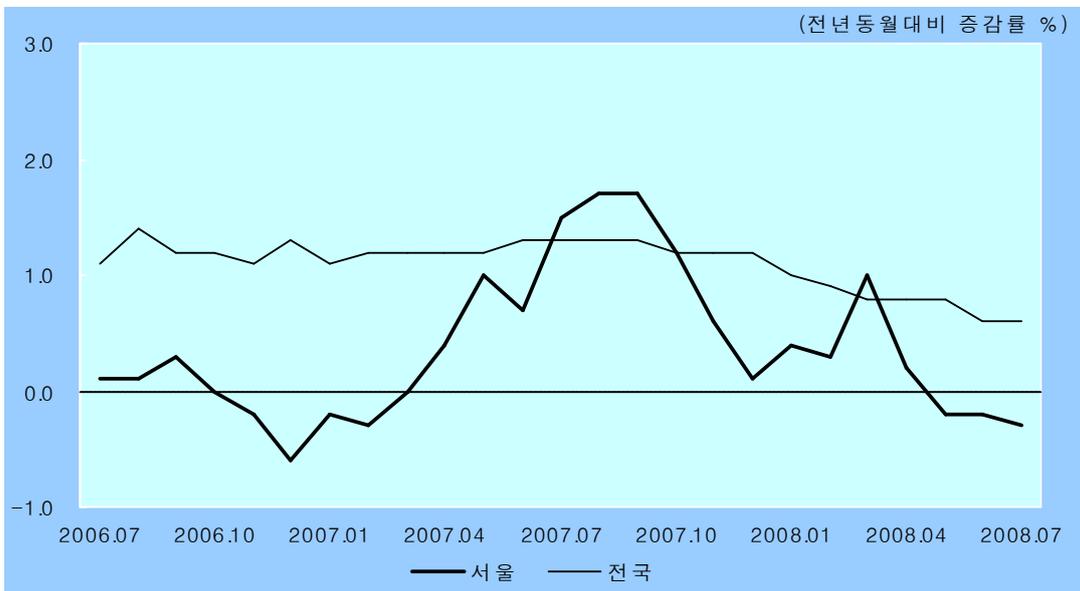
- 7월중 취업자는 4,97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천명(-0.3%)이 감소하였으며 전월대비 0.2% 감소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2,866명, 여자는 2,106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2천명(-0.1%), 여자는 13천명(-0.6%)이 각각 감소하였음
- 산업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농림어업 0.2천명(4.3%), 도소매음식숙박업 32천명(2.3%), 건설업 6천명(1.3%),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1천명(0.0%)이 각각 증가하였고, 제조업 44천명(-6.3%), 전가운수·통신·금융업 9천명(-1.6%)이 각각 감소하였음.

〈표〉 연령별 취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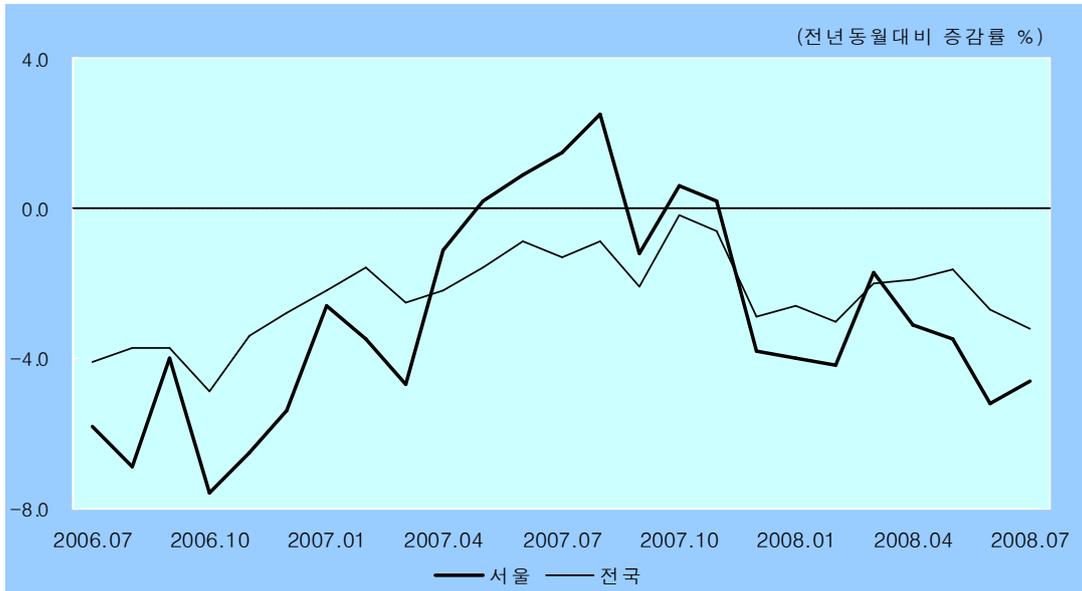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7년	2008					
		7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취업자	전국	1.3 (-0.3)	0.9 (-0.3)	0.8 (1.8)	0.8 (1.7)	0.8 (1.0)	0.6 (0.1)	0.6 (-0.2)
	서울	1.5 (0.3)	0.3 (-1.0)	1.0 (1.5)	0.2 (0.3)	-0.2 (0.4)	-0.2 (-0.2)	-0.3 (0.2)
	남자	1.0 (0.4)	-0.3 (-0.9)	0.4 (1.5)	0.1 (0.3)	0.2 (1.1)	-0.1 (-0.4)	-0.1 (0.4)
	여자	2.1 (0.2)	1.1 (-1.1)	1.9 (1.5)	0.3 (0.4)	-0.7 (-0.4)	-0.3 (0.2)	-0.6 (-0.1)
청년층 취업자	전국	-1.3 (2.9)	-3.0 (-2.5)	-2.0 (-1.2)	-1.9 (0.7)	-1.6 (1.5)	-2.7 (-1.2)	-3.2 (2.3)
	서울	1.5 (1.7)	-4.2 (-3.2)	-1.7 (0.5)	-3.1 (1.0)	-3.5 (1.4)	-5.2 (-2.1)	-4.6 (2.3)
고령층 취업자	전국		2.3 (0.4)	3.9 (5.2)	1.3 (5.0)	-3.4 (1.4)	0.4 (-0.1)	1.8 (-0.9)
	서울		0.1 (-1.7)	2.9 (2.5)	-0.9 (0.4)	1.5 (3.4)	0.5 (-2.2)	-0.9 (0.0)
	55-59세	5.7 (3.4)	8.3 (-0.1)	7.3 (1.9)	5.7 (0.8)	6.5 (2.9)	9.3 (-0.3)	4.1 (-1.8)
	60세 이상	12.3 (0.2)	-5.8 (-3.1)	-2.4 (5.4)	-5.8 (0.1)	-2.2 (3.7)	-5.9 (-3.8)	-4.6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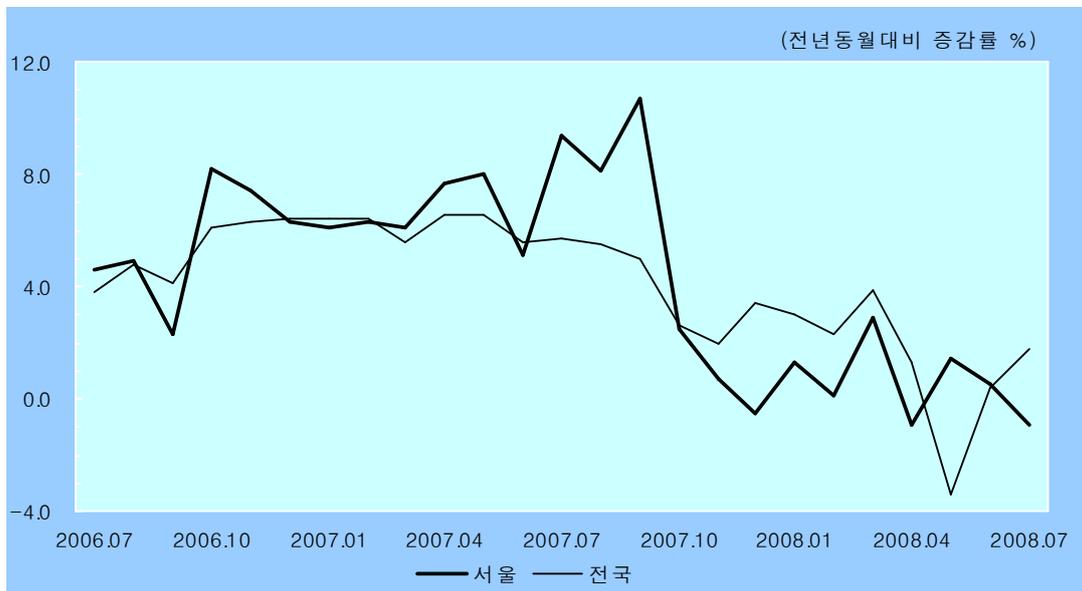
주: ( )안은 전월비임. 청년층 취업자는 15세~29세임. 고령층 취업자는 55세 이상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청년층(15~29세)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고령층(55세 이상) 취업자 증감률 추이

#### ■ 농림어업숙련종사자, 사무종사자는 증가

- 취업자를 직업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천명(28.3%), 사무종사자 28천명(3.5%), 서비스판매종사자 23천명(1.9%), 전문기술 행정관리자 10천명(0.6%)이 각각 증가하였고,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76천명(-5.4%)이 감소하였음.

#### ■ 비임금근로자 감소, 임금근로자 수 증가세 지속

- 취업자를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비임금근로자는 1,251천명이고, 임금근로자는 3,72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비임금근로자는 48천명(-3.7%)이 감소하였고, 임금근로자는 33천명(0.9%)이 증가하였음.
-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주는 전년동월대비 43천명(-3.9%), 무급가족종사자는 5천명(-2.4%)이 각각 감소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65천명(3.5%), 일용근로자는 2천명(0.3%)이 각각 증가하였고, 임시근로자는 34천명(-2.8%)이 감소

#### ■ 36시간 이상 취업자 전년동월대비 증가

- 취업시간대별로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54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49천명(-45.3%)이 감소하였고,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4,34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36천명(11.1%)이 증가하였음.
- 36시간 미만 취업자중 1-17시간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천명(0.7%)이 증가하였고, 18-35시간 취업자는 450천명(-57.4%)이 감소하였음.
- 36시간 이상 취업자중 36-53시간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316천명(12.7%), 54시간이상 취업자는 120천명(8.5%)이 각각 증가하였음.

〈표〉 산업별, 직업별, 종사상 지위별 취업동향

(단위: %)

구 분		2007년	2008년					
		7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산업별	제조업	-7.6 (-0.4)	-9.6 (-4.4)	-1.0 (8.4)	-2.9 (0.4)	-3.0 (-0.7)	-4.7 (-2.1)	-6.3 (-)
	SOC 및 기타서비스업	3.2 (0.4)	2.1 (-0.5)	1.5 (0.4)	0.8 (0.3)	0.3 (0.6)	0.5 (0.1)	0.7 (-)
	사업·개인·공공서비스	10.0 (0.8)	2.5 (-1.4)	1.9 (1.1)	1.0 (0.6)	0.1 (0.8)	-0.6 (1.0)	0.0 (-)
	도소매·음식숙박	-5.0 (1.7)	0.7 (-0.1)	0.9 (0.6)	1.0 (-1.6)	1.0 (-0.4)	1.5 (0.3)	2.3 (-)
	전기·운수·통신·금융	3.3 (0.7)	3.0 (-0.8)	5.0 (-2.3)	0.9 (1.4)	-0.1 (2.0)	1.9 (0.0)	-1.6 (-)
	건설업	2.5 (1.9)	4.0 (3.0)	-2.5 (0.5)	-1.1 (3.6)	-0.4 (0.8)	1.0 (-3.9)	1.3 (-)
직업별	전문·기술·행정관리자	6.2 (-1.4)	1.4 (-2.4)	3.3 (1.9)	1.1 (-0.6)	1.3 (0.7)	-2.5 (0.0)	0.6 (-)
	기능·기계작·조립·단종사자	-0.7 (1.7)	-5.2 (-1.9)	-5.1 (1.4)	-3.8 (3.6)	-4.2 (0.8)	-2.6 (-1.3)	-5.4 (-)
	서비스·판매종사자	-2.6 (2.0)	5.5 (-0.3)	4.7 (2.1)	2.3 (-3.3)	1.5 (-0.6)	3.6 (-0.1)	1.9 (-)
	사무종사자	3.1 (-1.3)	0.3 (2.1)	2.3 (0.1)	2.4 (2.3)	1.4 (0.8)	2.8 (1.3)	3.5 (-)
종사상 지위별	임금근로자	1.6 (0.7)	0.4 (-1.5)	1.0 (0.8)	0.8 (1.5)	1.1 (1.2)	1.1 (-0.6)	0.9 (-)
	비임금근로자	1.1 (-0.8)	0.2 (0.4)	1.2 (3.5)	-1.5 (-2.9)	-3.8 (-1.9)	-3.7 (1.2)	-3.7 (-)

주: (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 | 실 · 업 · 률 |

## 7월 서울의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포함

## ■ 전국의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소폭 하락

- 2008년 7월 실업자는 76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5천명(-3.2%) 감소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50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천명(-2.7%) 감소하였고, 여자는 26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천명(-4.2%) 증가하였음
- 실업률은 3.1%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3.5%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하였고, 여자는 2.6%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하였음
- 계절조정 실업률은 3.2%로 전월대비 변동이 없었음
- 연령계층별 전년동월대비 실업자는 40대, 50대에서 증가한 반면, 그 외 연령계층에서는 감소하였음
- 실업률은 40대에서 상승하였고, 나머지 연령계층에서는 하락하였음

## ■ 서울의 전년동월대비 실업률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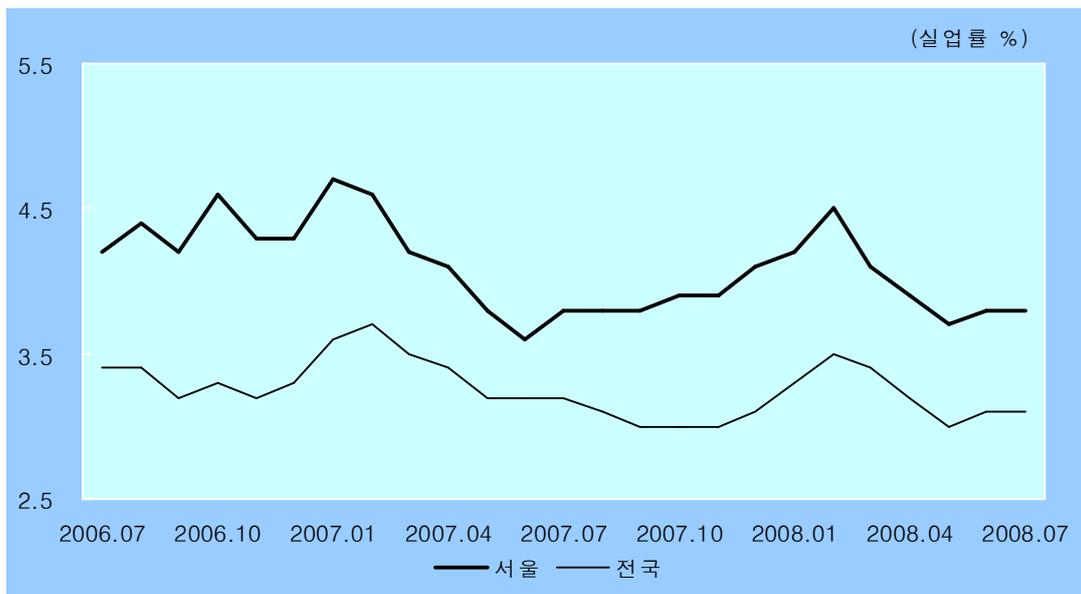
- 2008년 7월 실업자는 195천명, 실업률은 3.8%로 전년동월대비 실업자는 2천명(-1.2%)이 감소하였고, 실업률은 동일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22천명으로 10천명(-7.8%)이 감소하였고, 여자는 73천명으로 8천명(11.9%)이 증가하였음.
- 실업률은 남자는 0.3%포인트 감소하였고, 여자는 0.4%포인트 증가하였음.
- 서울시 실업률은 3.8%로 전국의 실업률 3.1%에 비하여 0.7%포인트 높은 수준

〈표〉 실업동향

(단위: %)

구 분		2007년	2008년					
		7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전국		3.2	3.5	3.4	3.2	3	3.1	3.1
서울		3.8	4.5	4.1	3.9	3.7	3.8	3.8
성 별	남자	4.4	5	4.4	4.3	4	4	4.1
	여자	3	3.8	3.8	3.3	3.3	3.6	3.4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실업률 추이

## | 건 · 설 · 경 · 기 |

2008년 6월 서울의 건설 경기 침체

## ■ 6월 서울의 건설수주액 감소(전년동월 대비)

- 전국의 건설수주액은 9조 1,15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3.4% 감소함
- 서울지역의 건설수주액은 1조 9,14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3.6%가 감소함
- 서울지역의 건설수주액은 전국대비 21.0%를 차지함
- 2/4분기로는 전년동분기 대비 35.7% 증가
- 서울지역의 건설수주에서 공공부문은 전년동월대비 297.8%가 증가하고, 민간부문에서는 14.2%가 감소함
- 공공부문은 신규주택 공사 및 재개발공사, 발전 및 송전부문의 발주 증가로 건설수주액이 증가하였고, 민간부문은 도로·교량 및 재건축재개발주택 공사부문의 발주의 감소가 그 원인임

## ■ 서울의 건축허가면적 감소(전년동월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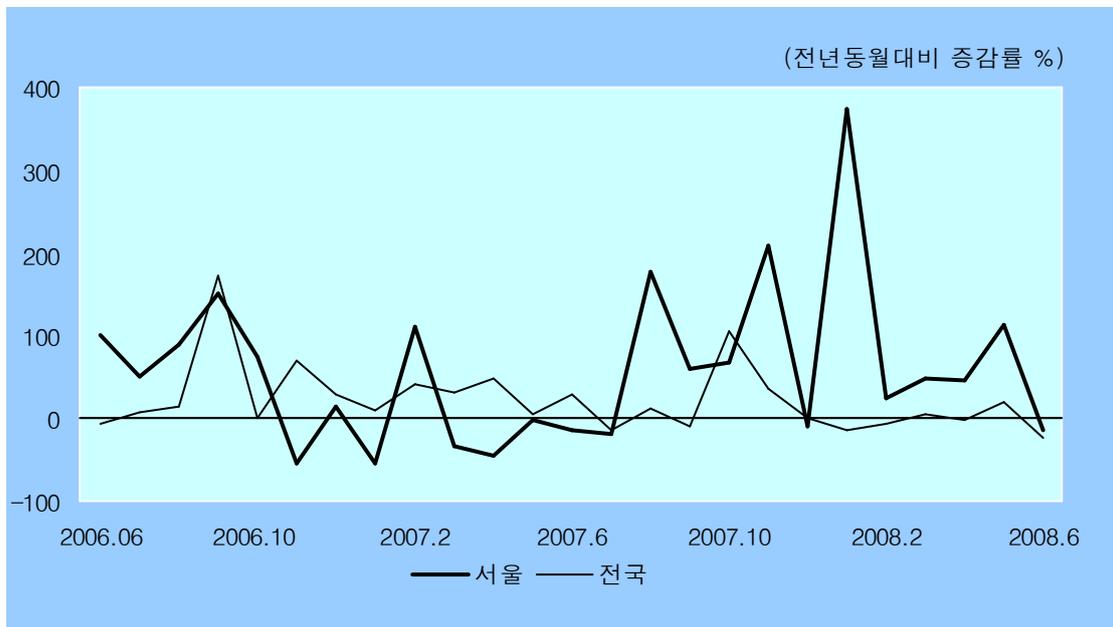
- 2008년 6월 서울의 건축허가면적은 4,073.2천㎡로 전년동월 대비 9.7% 감소함
- 주거용 건축허가면적 중 단독주택의 신축허가면적은 전년동월대비 32.7% 감소하고, 연립주택은 92.5% 감소, 아파트는 4,027.8% 증가함. 전체적으로 전년동월 대비 950.9% 증가함
- 비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의 경우, 전년동월 대비 공업(8,361.5%)·문교 및 사회(91.4%)는 증가, 상업(-56.2%)·기타(-74.5%) 부문은 감소하였음

〈표〉 건설수주액

(단위: 십억 원, %)

구 분	2007년	2008년					전년동월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6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전국	11,902	5,931	8,366	7,645	8,431	9,115	-23.4	8.1	
서울	2,216	1,078	1,139	1,423	2,731	1,914	-13.6	-29.9	
발주 자별	공공	19	88	232	135	671	74	297.8	-89.0
	민간	2,140	990	889	1,288	2,049	1,835	-14.2	-10.4
공종 별	건축	2,162	1,031	1,100	1,417	2,307	1,877	-13.2	-18.6
	토목	46	46	37	5	423	27	-41.9	-93.6

주: 발주자별 수주액은 국내외국기관, 민자공사 수주액이, 공종별 수주액은 전문공사 수주액이 제외된 수치임  
 자료: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건설수주액 추이

〈표〉 건축허가면적

(단위: 천㎡, %)

구 분	2007년	2008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6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서울	4,508.3	2,919.6	1,706.4	3,342.4	4,690.4	4,073.2	-9.7	-13.2	
주거용	소계	175.0	252.9	49.0	95.1	262.7	1,839.0	950.9	600.0
	단독	14.9	6.0	7.4	15.4	13.1	10.0	-32.7	-23.7
	연립	114.9	1.3	2.0	14.6	8.8	8.6	-92.5	-2.3
	아파트	44.1	252.5	39.6	65.1	240.8	1,820.4	4027.8	656.0
비주거용	소계	4,333.3	2,666.7	1,657.4	3,247.3	4,427.7	2,234.2	-48.4	-49.5
	상업	3,903.3	1,862.2	1,036.7	2,368.5	3,764.0	1,707.8	-56.2	-54.6
	공업	1.6	48.6	50.6	152.1	204.9	138.6	8361.5	-32.4
	문교/사회	168.0	738.9	502.3	673.3	357.1	321.5	91.4	-10.0
	기타	260.5	16.9	67.8	53.4	101.7	66.3	-74.5	-34.8

자료: 서울시 건축과

## | 주 · 택 · 매 · 매 · 가 · 격 |

## 7월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전월 대비 소폭 상승

- 7월의 주택매매가격 상승폭은 0.4%로 상승세가 둔화됨
  - 7월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장마철 비수기로 거래가 한산해진 가운데, 경기불안 우려감과 금리상승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전월대비 0.4% 상승하여 전월(0.6%)에 비해 상승세가 둔화됨
  - 서울을 제외한 기타 광역 시도 전월대비 상승폭이 축소되었으며, 일부 지역에서 개발호재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상승세를 보임
- 7월 서울 강북지역의 주택매매가격은 상승폭 둔화됨(전월대비)
  - 서울의 매매가격이 0.4% 상승하여 전월(0.7%)에 비해 상승세가 둔화되었음
  - 강북지역은 성북구(1.0%)가 인근 미아균형발전축진지구 개발에 따른 매물부족으로, 서대문구(0.9%)가 가재울뉴타운 이주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였으나 전월에 비해 상승세는 둔화됨
  - 강남지역에서는 구로구(0.9%)가 뉴타운식 광역개발 호재 및 서남권 개발계획 발표로 인해 역세권 및 노후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하였고, 금천구(0.8%)가 시흥가산동 일대의 매물부족으로 상승함. 한편, 강남구(-0.3%)와 강동구(-0.2%)는 경기 침체 및 대출규제 등에 따른 수요 감소로 2개월째 하락하였으며 서초구(-0.2%)도 재건축아파트 입주에 따른 2주택 회피매물 등이 증가하면서 하락함

〈표〉 매매가격 지수 증감률

(2007.12=100.0, 단위: %)

구 분	2007년	2008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7월	6월	7월		
전국	98.9	103.5	103.9	5.1	
서울	98.1	106.2	106.6	8.7	
아파트	98.9	105.9	106.1	7.3	
지역별 주택매매	강북	96.9	108.9	109.9	13.4
	강남	99.3	103.4	103.6	4.3

주: 전월대비 증감률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 강북 주요 상승지역은 성북구, 서대문구, 노원구

- 강북 지역은 전월에 비해 주택매매가격이 0.5% 상승하여, 상승폭은 둔화되었음
- 성북구(1.0%)는 인근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에 따른 매물부족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하였고, 서대문구(0.9%)는 가재울뉴타운 이주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였음
- 그 밖에도 강북구(0.6%), 동대문구(0.6%)는 강북 지역 평균 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광진구(0.5%), 중랑구(0.5%)는 강북 지역 평균 상승세에 일치하고 있었음
- 반면 중구와 성동구는 0.1% 상승률을 보여 강북지역 평균에 크게 미달하는 수준임

#### ■ 강남 주요 상승지역은 구로구, 금천구

- 강남 지역 주택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2% 상승하여 상승폭이 완화되고 있음
- 강서구(1.3%), 금천구(1.0%)와 같이 지하철 개통 등 호재가 있는 지역은 상승세를 보인 반면 강동구(-0.5%)와 강남구(-0.2%)는 규제완화가 불투명해지는데 따른 실망감으로 매물이 급증하여 큰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음. 또한 송파구(-0.1%)도 재건축 단지 입주물량이 증가하면서 올 들어 처음으로 하락하였음
- 강남지역에서는 구로구가 뉴타운식 광역개발 호재 및 서남권 개발계획 발표로 인해 역세권 및 노후단지를 중심으로 0.9% 상승하였고, 금천구가 시흥가산동 일대의 매물부족으로 0.8% 상승함. 강남구와 강동구는 경기 침체 및 대출규제 등에 따른 수요 감소로 각각 0.3%, 0.2% 하락하였으며 서초구도 재건축아파트 입주에 따른 2주택 회피매물 등이 증가하면서 0.2% 하락함

#### ■ 7월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 전월대비 둔화

-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0.2% 상승하여 전월(0.6%)에 비해 상승세가 크게 둔화되었음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매매가격은 1,828만원이며, 이를 상회하는 구는 강남구(3,459만원), 서초구(2,715만원), 용산구(2,533만원), 송파구(2,460만원), 양천구(2,046만원), 광진구(1,869만원), 강동구(1,841만원)로 나타났음
- 금천구의 아파트 평당매매가격이 지난달 1,006만원에 도달해 처음으로 1,000만원을 넘긴데 이어 7월에는 1,020만원을 기록하여 연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 주 · 택 · 전 · 세 · 가 · 격 |

7월 서울의 주택전세가격은 전월에 비해 상승세 감소

- 7월 기준 전국의 주택전세가격 상승세는 전월대비 소폭 감소
  - 계절적 비수기를 맞아 전국의 주택전세가격 상승율은 0.2%로 전월(0.3%)에 비해 상승세가 둔화되었고, 서울 강북지역(0.2%)의 상승폭은 축소된 반면, 강남지역(0.2%)은 상승폭이 다소 확대되었으며, 광역시는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둔화됨
  -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0.1%), 단독주택(0.2%), 연립주택(0.5%)이 모두 전월대비 상승폭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남
  - 전국의 주택규모별 전세가격은 대형과 중형, 소형이 각각 0.1%, 0.2%, 0.3% 상승하면서 중소형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전월보다 상승폭이 다소 축소됨
  
- 7월 기준 서울의 주택전세가격 상승세는 전월에 비해 소폭 감소
  - 서울의 주택전세가격은 0.2% 상승으로 전반적으로 전월(0.3%)에 비해 안정된 모습을 보였으나, 강북지역의 상승폭이 축소된 반면 강남지역은 상승폭이 확대되었음
  - 동대문구(1.0%)가 휘경 4구역과 전농·답십리 뉴타운 지역의 이주수요가 증가하면서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서대문구(0.7%)도 가재울 뉴타운 이주수요 증가로 전세물량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은평구는 비수기에 따른 수요 감소와 신규 입주물량 증가로 0.5% 하락함
  - 서울지역의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은 각각 0.3%, 0.4% 상승하여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상대적인 강세는 지속됨

〈표〉 전세가격 지수 증감률

(2007.12=100.0, 단위: %)

구 분	2007년		2008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7월	6월	7월	7월	
전국	99.1	102.3	102.5		3.4
서울	98.8	103.4	103.6		4.9
아파트	99.9	102.0	102.1		2.2
지역별 주택전세					
강북	98.0	104.7	104.9		7.0
강남	99.6	102.1	102.3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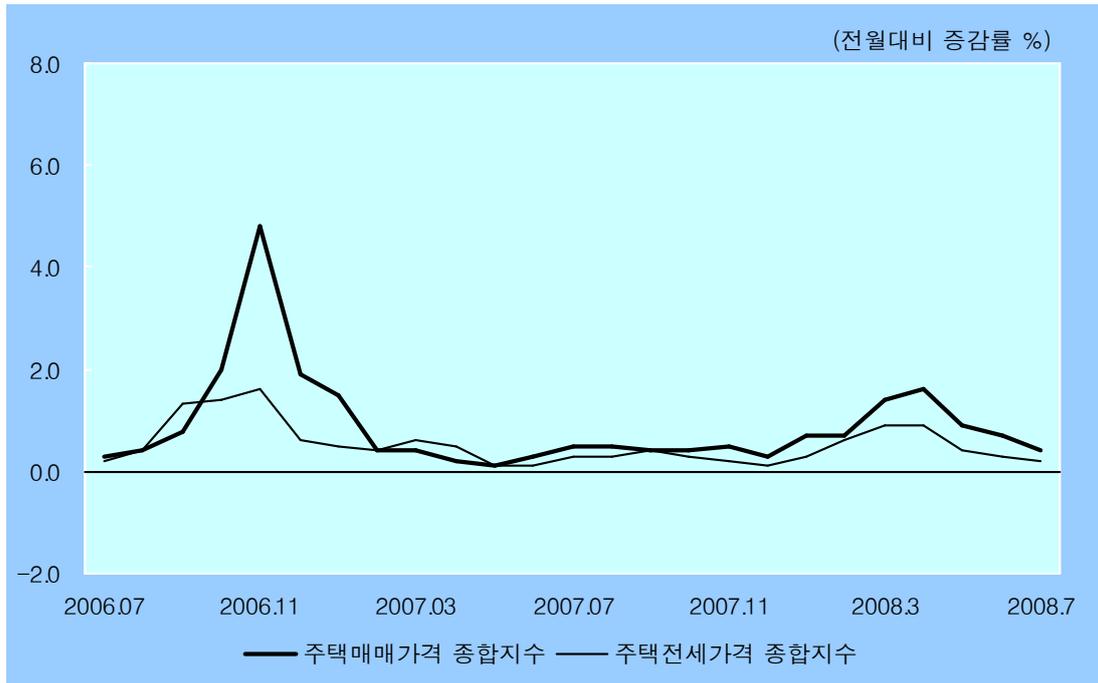
주: 전월대비 증감률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 주요 상승지역은 동대문구, 서대문구, 광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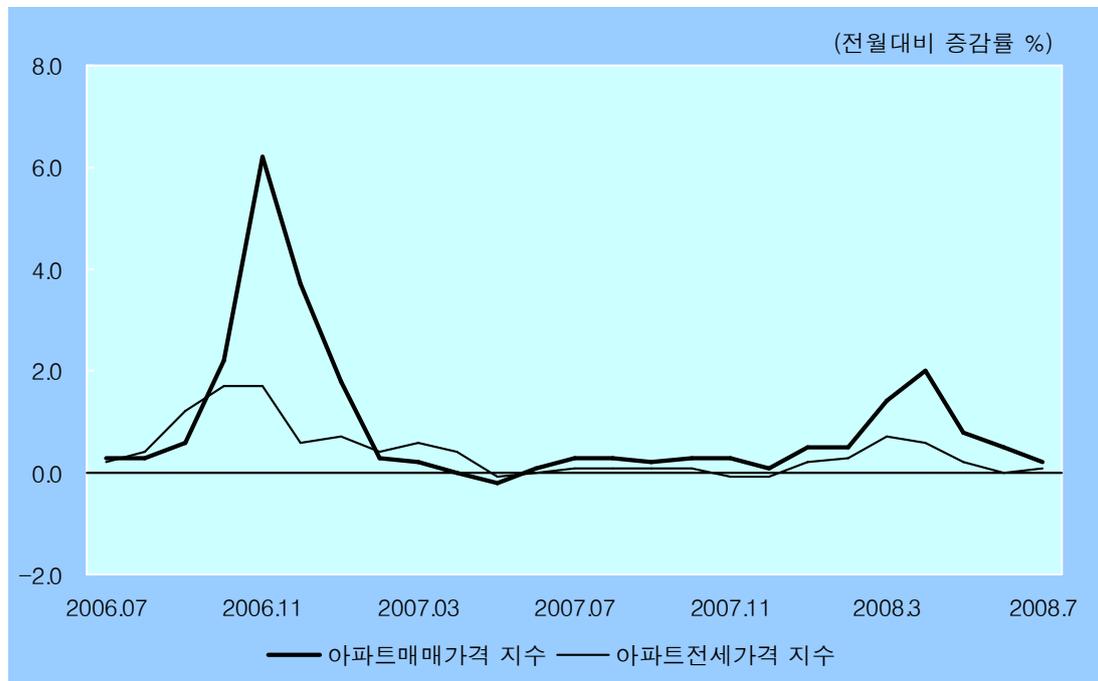
- 동대문구(1.0%)가 휘경 4구역과 전농답십리 뉴타운 지역의 이주수요가 증가하면서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보였음. 서대문구(0.7%)도 가재울 뉴타운 이주수요 증가로 전세물량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상승세를 보였으며, 광진구(0.6%)도 높은 상승률을 나타냄
- 은평구는 비수기에 따른 수요 감소와 신규 입주물량 증가로 0.5% 하락하였고, 성동구와 중구는 전월과 같은 상승률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 ■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세 유지

-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2008년 5월 39.8%, 2008년 6월 39.3%, 7월에는 39.2%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음
- 2008년 7월중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전월에 비해 0.1% 하락하였음
- 서울은 전국 평균 52.6%보다 13.4%p 낮은 수준이며,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던 전국과의 격차(1월: 12.0%p, 2월: 12.1%p, 3월: 12.4%p, 4월: 13.1%p, 5월: 13.3%p, 6월: 13.5%p) 폭이 다소 좁아졌음
- 지역적으로 보면 그 비율은 강북 42.0%, 강남 36.9%로 강남과 강북의 격차는 5.1%이며, 강남 북간 차이는 줄어들고 있는 것(3월: 8.7%p, 4월: 7.1%p, 5월: 6.4%p, 6월: 5.7%p)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및 주택전세가격 지수 추이



<그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및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 추이

## | 시 · 중 · 자 · 금 · 사 · 정 |

CD(91일) 유통수익률은 상승세 지속

## 금리

- 국고채(3년) 유통수익률 상승하였다가 재차 하락
  - 7월 중 국고채(3년)유통수익률은 월 초반 6%대로 일시 상승하였다가 저가매수세 유입, 원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하락하여 5.7%~5.8% 수준에서 변동함 (6월말 5.90% → 7.14일 6.17% → 7월말 5.80% → 8.5일 5.76%, 6월말 대비 -14bp)
- CD(91일) 유통수익률은 꾸준히 상승
  - 6월말 5.37% → 7월말 5.68% → 8.5일 5.72% +35bp)
- 7월 기준 장·단기 금리차 확대
  - 7월말 장·단기 금리차는 0.12%p로 국고채(3년)이 소폭 감소한데 비해 CD 유통수익률은 대폭 상승함으로써 전월 대비 격차가 크게 축소됨

## 주가

- 7월 기준 KOSPI 지수 최저치로 급락 이후 유가 하락 등으로 다소 반등
  - KOSPI 지수는 신용위기 경계감 재연 등에 따라 7월 중순 연중최저치(7.16일 1,507p)로 급락한 이후 유가 하락 등으로 제한된 반등세 시현 (5월말 1,852p → 6월말 1,675p → 7월말 1,595p → 8.5일 1,536p)
- 7월중 외국인 투자자는 대규모 순매도 지속
  - 국내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는 순매수를 지속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은 전월에 이어 대규모 순매도를 지속하고 있음
    - 외국인: 08.5월 +0.9조원 → 6월 -5.2조원 → 7월 -5.1조원
    - 기관투자자: 08.5월 -0.8조원 → 6월 +2.2조원 → 7월 +4.4조원
    - 개인투자자: 08.5월 -0.4조원 → 6월 +2.0조원 → 7월 +0.1조원

〈표〉 주요 금융지표 추이

(기말, 단위: %, %p, p)

구분	2007년	2008년					전월대비 증감률	
	7월	3월	4월	5월	6월	7월		
금리	국고채(3년)	5.22	5.1	4.88	5.46	5.9	5.80	-1.69
	CD(91일물)	5.10	5.38	5.36	5.36	5.37	5.68	5.77
	콜금리(1일)	4.76	4.97	4.99	4.97	4.95	4.98	0.61
	장단기 금리차 <sup>1)</sup>	0.12	-0.28	-0.48	0.42	0.53	0.12	-77.36
주가	KOSPI	1,933.3	1,651.10	1,776.60	1,846.80	1,758.17	1,569.60	-10.73
	KOSDAQ	811.5	627.5	647.8	649.5	619.33	536.92	-13.31
환율 (W/US\$)	919.3	982.5	987.2	1,038.20	1,031.07	1018.18	-1.25	

주: 장단기 금리차 = 국고채-CD  
 자료: 한국은행

■ 7월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전월대비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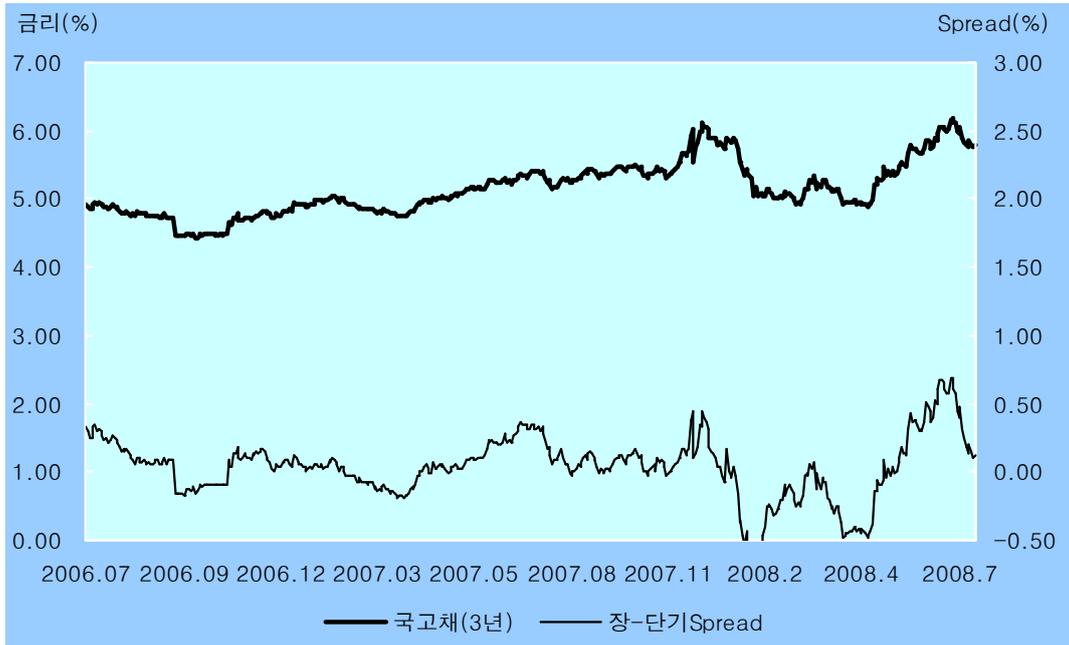
- 은행의 가계대출 전월보다 축소됨  
 (6월 +3.1조원 → 7월 +2.5조원)
- 주택담보대출은 2.4조원 증가하여 전월(+1.3조원)보다 증가폭이 확대
- 모기지론 양도 포함시 증가액은 전월보다 다소 축소
-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여타대출은 주택금융공사와 학자금대출채권 양도 등으로 변동이 거의 없음

〈표〉 가계대출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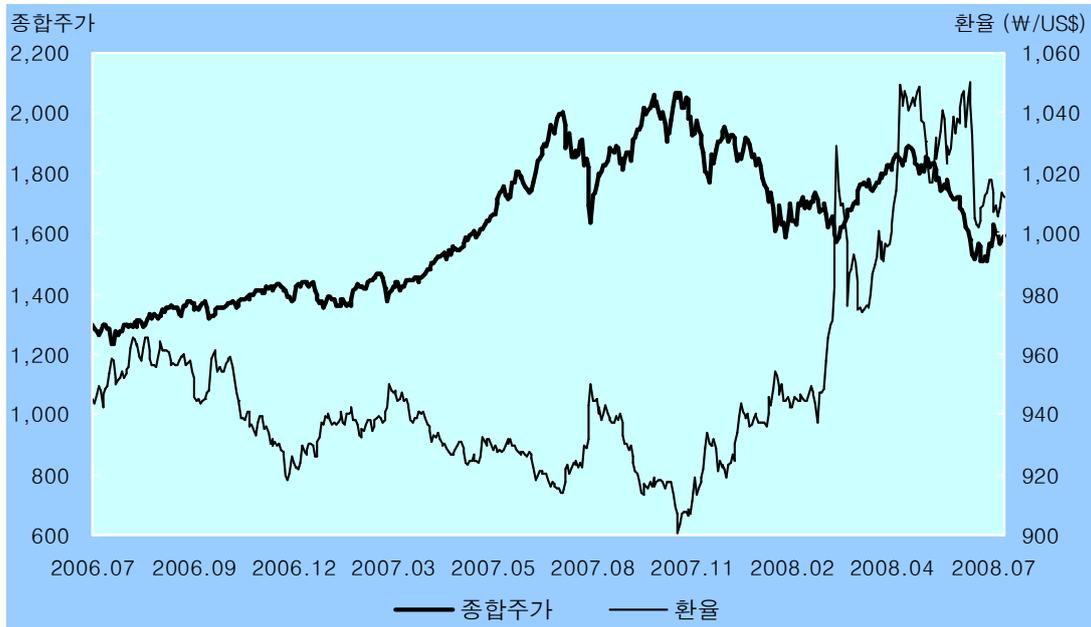
(기간 중 말잔 증감, 단위: 조 원, %)

구분	2007년	2008년					월말잔액		전월대비 증감률
		연중	3월	4월	5월	6월	7월	2008년	
							6월	7월	
가계대출 <sup>1)</sup>	17.8	2.4	3.4	2.7	3.1	2.5	376.7	379.2	0.66
주택담보대출 <sup>2)</sup>	4.6	1.0	2.4	1.5	1.3	2.4	229.5	231.9	1.05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13.0	1.4	1.0	1.2	1.8	-0.0	145.4	145.4	0.00

주: 1) 종별대출은 신탁 제외 2) 주택자금대출 포함  
 자료: 한국은행



<그림> 주요 금리추이



<그림> 종합주가 및 환율 추이

■ 6월 기준 서울지역 대출금 전월대비 증가

- 6월 전국의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1,139조 2,735억원으로, 전월대비 12조 4,554억원 증가함
- 6월말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460조 1,046억원 규모로 나타났음

〈표〉 서울시 금융기관<sup>1)</sup> 대출금 잔액 추이

(말잔, 단위 : 십억 원)

		2007년	2008년				전월대비 증감액
		6월	3월	4월	5월	6월	
전국	예금은행	747,823.0	833,537.3	849,091.3	858,336.1	870,377.1	12,041.0
	비은행기관	234,851.5	264,349.6	266,942.6	268,482.0	268,896.4	414.4
	합계	982,674.5	1,097,886.9	1,116,033.9	1,126,818.1	1,139,273.5	12,455.4
서울	예금은행	310,800.2	358,932.4	367,426.6	371,719.0	378,204.3	6,485.3
	비은행기관	71,318.5	84,192.0	84,265.6	84,093.6	81,900.3	-2,193.3
	합계	382,118.7	443,124.4	451,692.2	455,812.6	460,104.6	4,292.0

주: 1)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을 합한 예금취급기관 기준, 생명보험사 및 증권금융은 제외됨

■ 6월중 서울의 예금은행 예대율 지속적인 상승세

- 서울의 6월 중 자금의 지역환류도를 나타내는 예대율(총대출금잔액/총예수금잔액)은 5월보다 0.83%p 상승한 60.4%를 기록함
- 전국적인 예금은행 예대율도 연속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서울의 예대율 상승 폭에는 못 미치는 0.57%p를 기록하였음

〈표〉 지역별 예금은행 예대율<sup>1)</sup> 추이

(단위 : %, %p)

	2007년	2008년				전월대비 증감율
	6월	3월	4월	5월	6월	
전국	84.4	88.0	87.3	87.8	88.3	0.57
서울	56.0	59.5	58.8	59.9	60.4	0.83

주: 1) 총대출금(금융자금대출+재정자금대출)/총예수금(요구불예금+저축성예금+CD+금융채), 2002년부터 산업은행 포함

## | 창·업·동·향 |

## 7월 기준 서울 신설법인 수 전월대비 증가

- 전국 신설법인 수 증가(전년동월 대비)
  - 7월 전국의 신설법인 수는 5,006개로 6월에 비해 7.38%(344개) 증가함. 5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하였으며, 전년동월비도 8.92%(410개) 증가하였음
  - 특히 344개 중 1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자본금 1억 이하의 생계형 창업이었으며, 그 중 서비스업이 228개로 66.5%를 차지하였음
- 서울 전월대비 신설법인 수 증가
  - 7월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1,794개로 전월대비 10.33%(168개) 증가하였음
- 서울 서비스업의 신설법인수 증가, 제조업의 신설법인수 감소
  - 서울의 서비스업과 건설 및 설비업은 전월대비 각각 14.62%, 5.37% 증가하였고, 제조업은 14.72% (29개)감소하였음

〈표〉 산업별 신설업증

(단위: 개소, %)

구분	2007년	2008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7월	4월	5월	6월	7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4,596	4,790	4,113	4,662	5,006	344	7.38	410	8.92
서울	1,738	1,687	1,487	1,626	1,794	168	10.33	56	3.22
서비스업	1,408	1,352	1,212	1,279	1,466	187	14.62	58	4.12
제조업	166	145	128	197	168	-29	-14.72	2	1.20
건설 및 설비업	161	187	143	149	157	8	5.37	-4	-2.48

자료: 중소기업청

## | 어 · 음 · 부 · 도 · 율 |

### 서울 어음부도율 하락세 유지

#### ■ 전국 어음부도율 하락세 유지

- 7월 전국의 어음부도율(전자결제조정후)은 0.02%로 전월대비 0.01%p 하락함
- 전국의 부도업체 수는 209개로, 전월(191개) 보다 18개 증가함

#### ■ 서울 어음부도율 하락세 유지

-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01%로 전월 0.02% 보다 0.01%p 하락함
-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80개로 전월보다 17개 증가하였으며, 지방은 129개로 전월대비 1개가 증가함
-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이 전월보다 각각 11개, 4개씩 감소하였으나, 서비스업이 23개 증가하였고, 농어업 등 기타도 10개 증가함

〈표〉 어음부도율 및 부도업체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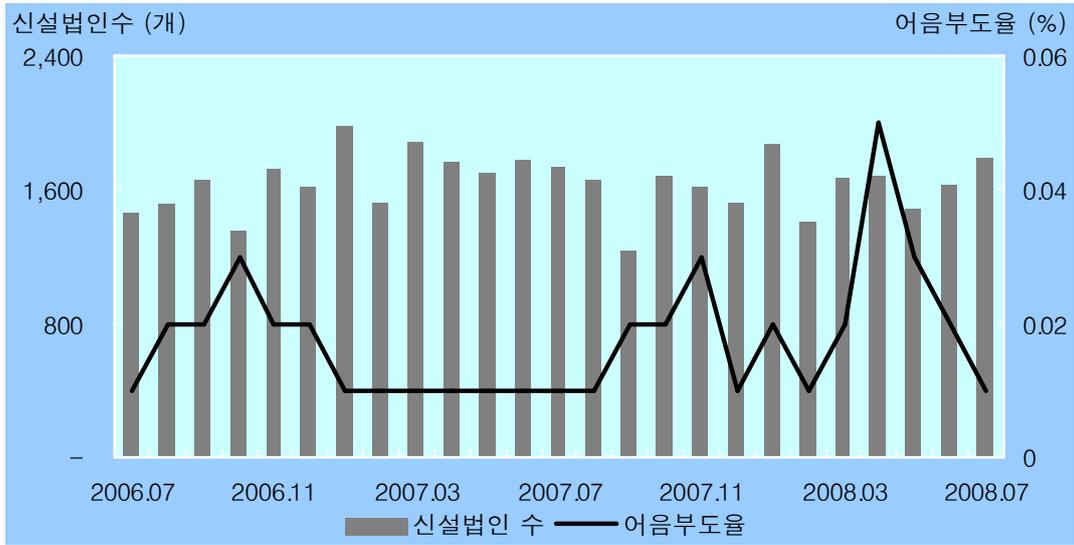
(단위: 개소, %, %p)

구 분	2007년	2008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7월	4월	5월	6월	7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어음부도율	0.02	0.06	0.04	0.03	0.02	-0.01	-33.33	0	0.00
	부도업체 수	214	234	202	191	209	18	9.42	-5	-2.34
서울	어음부도율	0.01	0.05	0.03	0.02	0.01	-0.01	-50.00	0	0.00
	부도업체 수	61	79	75	63	80	17	26.98	19	31.15

주: 어음부도율은 전자결제 조정 후 수치임, 부도업체 수는 당좌거래정지업체 기준임

(전년동월비)는 부지표임자료

자료: 한국은행



자료: 한국은행, 중소기업청

<그림> 서울의 창업 및 어음부도율 동향

## | 신 · 용 · 보 · 증 · 동 · 향 |

소상공인의 보증공급 비중 90% 초과

### ■ 안정적인 보증공급 추세 유지

-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은 7월중 5,260건, 69,452백만원 공급하여 전월대비 건수는 3.3%, 금액은 12.1% 감소함
- 1천만원 이하 소액보증 (「뉴스타트 2008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금액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건수는 전월수준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보증공급 추세를 지속함

〈표〉 월간 신용보증 추이

(단위: 건, 백만원, %p)

구 분	2007년	2008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7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건수	2,002	1,319	1,396	3,109	5,438	5,260	-178	-3.3	3,258	162.7
금액	36,270	52,566	54,741	53,541	79,027	69,452	-9,575	-12.1	33,182	91.5
건당평균금액	18.1	39.9	39.2	17.2	14.5	13.2	-1.3	-9.0	-4.9	-27.1

주: 전년동월비는 부지표임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 제조업 비중(금액기준)의 지속적 감소

- 7월 업종별 신용보증 현황은 음식·숙박업의 비중(금액기준)이 2.1%p 증가하여 23.7%를 나타낸 반면 제조업의 비중(금액기준)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11.0%를 나타냄

〈표〉 월간 업종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기타	합계
건수	425	1,995	1,369	1,043	428	5,260
비율	8.1	37.9	26.0	19.8	8.2	100
금액	7,632	26,759	16,477	13,466	5,118	69,452
비율	11.0	38.5	23.7	19.4	7.4	10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소상공인의 비중(금액기준) 90% 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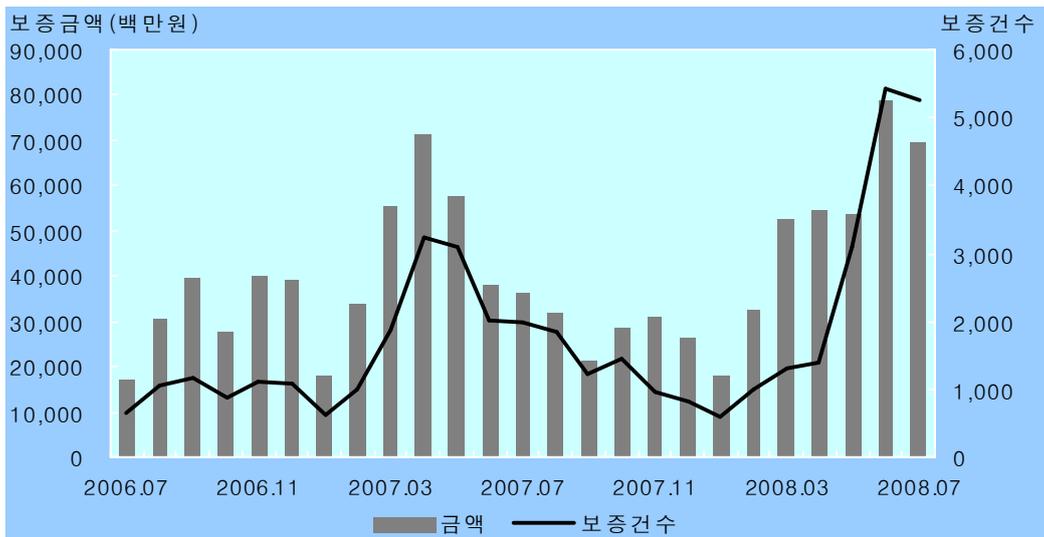
- 소상공인의 비중(금액기준)이 3개월 연속하여 증가해 93.3%에 이른 반면, 소기업 및 중기업의 비중은 각각 5.0%p, 3.3%p 감소함

〈표〉 월간 기업규모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p)

구분		2008.05	2008.06	2008.07	전월대비증감
소상공인	건수	2,974	5,236	5,133	-103
	비율	95.6	96.3	97.6	1.3
	금액	44,524	67,140	64,806	-2,334
	비율	83.2	85.0	93.3	8.3
소기업	건수	111	159	108	-51
	비율	3.6	2.9	2.0	-0.9
	금액	6,907	8,074	3,617	-4,457
	비율	12.9	10.2	5.2	-5.0
중기업	건수	24	43	19	-24
	비율	0.8	0.8	0.4	-0.4
	금액	2,110	3,813	1,029	-2,784
	비율	3.9	4.8	1.5	-3.3
합계	건수	3,109	5,438	5,260	-178
	비율	100	100	100	0
	금액	53,541	79,027	69,452	-9,575
	비율	100	100	100	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서울의 보증금액 및 보증건수 동향

## | 수 · 출 · 입 · 동 · 향 |

### 서울의 수출입 전년동월 대비 큰 폭 증가

- 전국 수출과 수입 모두 증가세
  - 7월 전국의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36.0% 증가한 410.9억달러, 수입은 47.2% 증가한 430.3억달러를 기록하였음
  - 수출의 경우 처음으로 월 단위 수출액 400억 달러에 진입하였고 1997년 3월에 월 수출액 100억달러를 돌파 한 이후 11년 만에 400억 달러를 돌파함
- 전국 수입 중 원자재는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
  - 선박, 석유제품이 전체적인 수출증가세를 이끌고 있으나, 과거 주력 수출품목인 정보통신기기 및 반도체는 감소세를 나타냄
  - 수입의 경우 원자재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원유 등 연료와 철강재, 광물의 급증으로 전체적으로 66.7%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
- 7월 기준 서울 수출과 수입 전년동월대비 크게 증가
  - 7월 서울의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36.7% 증가하였고, 수입은 48.9% 증가하여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전월대비 수출과 수입은 각각 15.5%, 16.8% 증가하여 수입의 증가폭이 수출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 7월 기준 수출 1순위는 편직물, 수입 1순위는 반도체
  - 서울의 품목별 수출의 경우, 편직물이 215,748천 달러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다음은 반도체, 컴퓨터, 자동차부품 등 순으로 나타남
  - 서울의 품목별 수입의 경우, 반도체가 가장 많아 779,263천 달러에 달하였으며, 다음은 컴퓨터, 석유제품, 철강관 등 수입
  -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수출의 경우 정밀화학원료(273.5%)이고 수입의 경우 LPG였음

<표> 수출입

(단위: 백만 불, %)

구 분	2007년	2008년					전년동월비		(전월비)		
	7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수출	30,207	36,046	37,843	39,389	37,323	41,093	10,886	36.0	3,770	10.1
	수입	29,223	36,863	38,038	38,469	37,756	43,029	13,806	47.2	5,273	14.0
서울	수출	2,277	2,761	3,185	2,985	2,696	3,113	836	36.7	417	15.5
	수입	5,606	7,431	8,217	7,724	7,146	8,348	2,742	48.9	1,202	16.8

주: (전월비)는 부지표임

자료: 무역협회

<표> 서울의 품목별 수출

(단위: 천불, %)

순위	품목명	2008년 7월		2007년 7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편직물	215,748	13.4	190,311	6.7
2	반도체	192,905	6.6	180,950	1.1
3	컴퓨터	145,400	107.7	70,000	-13.7
4	자동차부품	139,141	64.4	84,658	-5.9
5	합성수지	134,603	26.3	106,542	25.3
6	고무제품	132,877	35.6	97,956	6.8
7	의류	126,476	12.7	112,260	-23.1
8	정밀화학원료	86,777	273.5	23,234	-19.8
9	인조장섬유직물	85,477	14.1	74,935	9.3
10	무선통신기기	82,520	28.4	64,279	-26
	합계	3,113,022	36.7	2,277,061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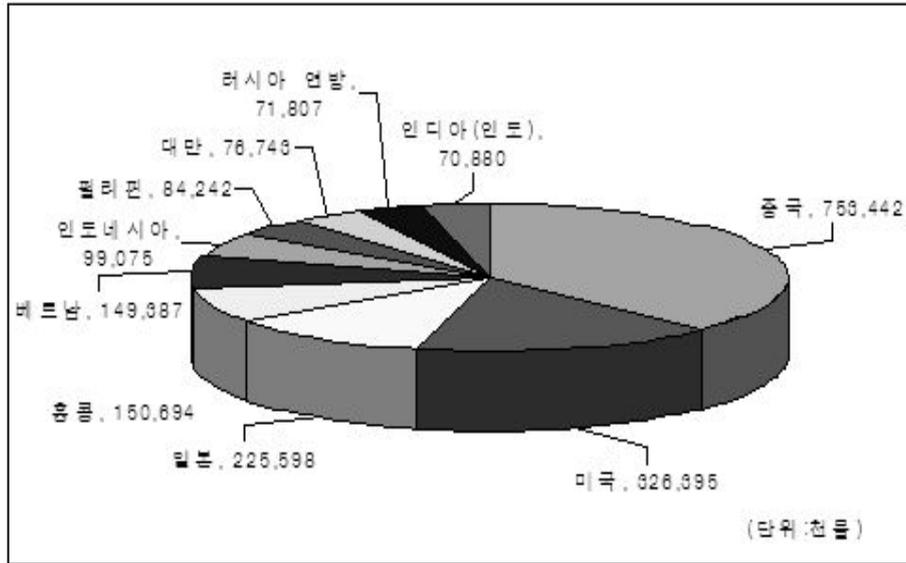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표> 서울의 품목별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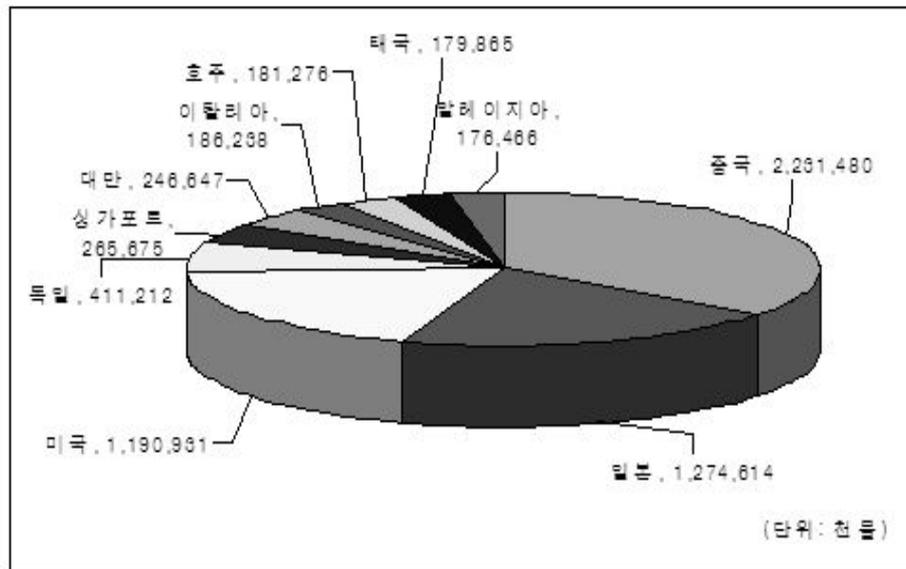
(단위: 천불, %)

순위	품목명	2008년 7월		2007년 7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반도체	779,263	98.8	392,076	16.1
2	컴퓨터	440,901	14.5	385,201	-9.0
3	석유제품	332,613	146.6	134,894	26.8
4	철강판	319,082	234.1	95,506	52.8
5	항공기및부품	278,150	50.1	185,272	-17.8
6	의류	277,862	4.5	265,826	34.8
7	LPG	266,743	2,667,433,810.0	0	-
8	자동차	255,954	26.6	202,202	-10.3
9	무선통신기기	173,861	58.0	110,019	-13.2
10	선재봉강및철근	160,239	192.6	54,773	23.4
	합계	8,347,553	48.9	5,605,990	17.0

자료: 무역협회



<그림> 서울의 국가별 수출



<그림> 서울의 국가별 수입